새 역사 쓴 한국 배드민턴…아시안게임도 '金빛' 기대감

안세영 등 세계선수권 금메달 3개 석권…역대 최고 성적

아시안게임에서 최다 금메달 기록 도전…1994·2002 4개

안세영(1위)이 27일(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의 로열 아레나에서 열린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하면서 환호하고 있다.

강민혁과 서승재가 26일(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의 로열 아레나에서 열린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복식 준결승에서 에런 치아-소우이익 조(말레이시아)를 물리친 후 가슴의 태극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2023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는 경사를 맞았다. 다음달에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한국은 28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에서 여자단식, 혼합복식, 남자복식 금메달과 여자복식 동메달을 수확했다.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이 남녀 단식 통틀어 한국 선수 최초로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서승재-채유정 조는 2003년 김동문-라경민 조 이후 20년 만에 혼합복식 우승을 달성했다. 남자복식 서승재-강민혁 조는 2014년 고성현-신백철 조 이후 9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5년 길영아-장혜옥 조 이후 28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김소영-공희용 조는 여자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배드민턴의 역사적인 날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이 대회 5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종전 최고 성적은 1985년, 1991년, 1999년에 달성한 2개 종목 우승이었다.

이제 시선은 아시안게임으로 향한다. 한국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1978년 방콕 대회 이후 40년 만에 노메달 수모를 겪었다. 당시 유망주였던 안세영은 여자단식 32강에서 탈락했다.

세계선수권에서 새 역사를 쓰며 아시안게임 메달 가능성을 높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설욕을 노린다. 세계선수권에서 입상한 안세영, 서승재, 채유정, 강민혁, 김소영, 공희용 모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한국 배드민턴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기록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에서 쓸어담은 4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최다 금메달 기록에 도전해볼 만하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자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올해 12번의 국제대회에서 8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올 시즌 4차례 금메달을 목에 건 김소영-공희용 조도 우승 후보다.

이번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은 단체전이 마무리된 뒤 단식과 복식 경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면서 동시에 메달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뉴시스

고진영이 27일(현지시각)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쇼너시 골프 앤드 C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PKC 위민스 오픈 최종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고진영은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로 메간 캉(미국)과 동타를 이뤄 연장 끝에 2위로 대회를 마쳤다.

CPKC여자오픈 준우승 고진영 "연장전 티샷 아쉽다"

연장 접전 끝에 아쉬운 준우승…메건 캉, 데뷔 8년 만에 정상 등극

미국여프로골프(LPGA) 투어 CPKC 여자오픈(총상금 250만 달러)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고진영이 연장전 마지막 티샷이 아쉬웠다고 돌이켰다.

고진영이 미국여프로골프(LPGA) 투어 CPKC 여자오픈(총상금 250만 달러)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고진영은 28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쇼너시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를 쳐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친 고진영은 선두 메건 캉(미국)과 동타를 기록했다.

이날 13번과 17번홀을 비롯해 총 5개의 보기를 기록한 메건 캉은 18번 홀에서 극적인 버디 퍼트를 성공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고진영은 18번홀에서 열린 연장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실수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공이 숲속으로 들어가 1타를 잃은 고진영은 다음 샷도 나무로 인해 정상적인 샷을 하지 못해 벙커에 빠뜨렸다. 결국 더블보기로 마무리했다.

지난 3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시즌 세 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통한의 실수로 아쉬움을 남겼다.

고진영은 "사실 오늘 연장전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5타 차이로 뒤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게임을 잘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연장전까지 가게 됐다. 마지막 홀 티샷이 조금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은 "지난 몇 달간, 게임이 너무 안 풀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번 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우승했던 어느 대회보다 더 행복한 한 주였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메건 캉은 파로 연장전을 마무리하면서 생애 첫 LPGA 투어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6년 데뷔 후 8년 만의 우승이다.

전날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2위로 도약했던 김세영은 이날 2타를 잃었다.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를 쳐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뉴시스

3위 도약 노리는 NC·4연승 질주 KIA '빅뱅'

3연패 LG, 두산·롯데와 대결…최근 13경기 11승 2패 KT, 하위권 팀들과 맞대결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순위싸움을 펼친다.

NC는 오는 29일부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IA와 3연전을 치른다.

최근 3연승을 달린 NC(55승 2무 49패)는 4위를 달리고 있다. NC는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지만,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KIA(52승 2무 50패)는 4연승을 질주해 5위로 올라섰다. KIA는 4위 NC와의 승차를 2경기로 좁혔다.

NC는 지난주 4경기에서 30점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공격력을 자랑했다.

특히 지난주 박민우, 도태훈, 손아섭, 박건우 등 NC 타자들은 무시무시한 타격감을 선보였다. 또한 지난주 8개의 홈런을 쏘아올려 상대 투수진을 무너뜨렸다.

KIA는 지난주 마리오 산체스와 양현종, 토마스 파노니 등 선발진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했다.

NC와 KIA는 올해 상대전적에서도 4승 1무 4패로 호각을 이뤘다.

최근 3연패를 당한 LG 트윈스(65승 2무 41패)는 2위 KT 위즈(62승 2무 47패)에 4.5경기 차로 추격을 허용했다.

LG는 최근 투타가 모두 흔들렸다. LG의 불펜진 정우영과 박명근이 흔들렸고, 마무리 고우석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팀 타율은 0.211로 낮았다.

LG는 6위로 떨어진 두산 베어스, 7연패 중인 롯데 자이언츠와 차례로 맞붙는다.

LG는 올해 두산을 상대로 8승 2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고, 롯데전에서 7승 5패로 강했다.

KT는 최근 13경기에서 11승 2패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여 1위 탈환을 바라보고 있다.

선발 윌리엄 쿠에바스는 8월에만 5전 전승을 올렸고, 평균자책점은 0.50으로 매우 낮다. 불펜 에이스 박영현과 마무리 김재윤의 활약도 돋보였다.

KT는 이번 주 하위권 팀인 삼성 라이온즈, 키움 히어로즈와 대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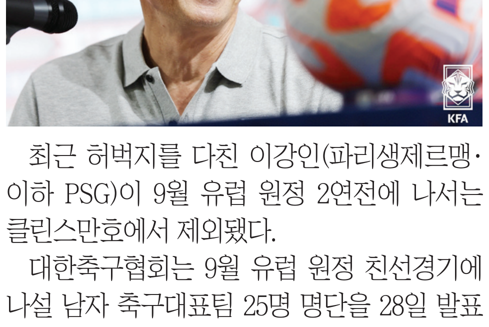
7연패의 수렁에 빠진 7위 롯데(50승 58패)는 '가을야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7연패를 하는 동안 6차례나 1~2점 차 패배를 당했다.

선발투수 애런 윌커슨과 나균안, 찰리 반즈가 호투하고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의 멍에를 썼다.

롯데는 한화 이글스, 두산과 차례로 대결한다.

이강인, 부상으로 클린스만호 9월 유럽 원정 2연전 제외

손흥민·김민재 등 주축 포함…부상 중인 조규성·황희찬·오현규 발탁



최근 허벅지를 다친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하 PSG)이 9월 유럽 원정 2연전에 나서는 클린스만호에서 제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 유럽 원정 친선경기에 나설 남자 축구대표팀 25명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김민재(바이에른뮌헨), 이재성(마인츠), 김영권(울산) 등 주축 멤버들을 대거 포함했다.

부상 이슈가 있던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과 오현규(셀틱), 황희찬(울버햄튼)도 이름을 올렸다. 또 최근 소속팀과 이적 갈등으로 결장 중인 미드필더 황인범(올림피아코스)도 발탁됐다.

독일 무대에 진출했다가 지난 6월 K리그1 울산으로 돌아온 이동경과 강상우(베이징궈안)는 지난해 1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중동 원정 이후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또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두 차례 평가전에 소집됐으나 경기는 뛰지 못했던 양현준(셀틱)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준홍(김천)과 김지수(브렌트포드), 이순민(광주)은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에 뽑혔다.

골키퍼 김준홍과 중앙수비수 김지수는 지난 6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 멤버다.

이순민은 올해 K리그1에서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의 핵심 미드필더로, 29세의 늦은 나이에 처음 대표팀에 승선했다.

반면 최근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강인과 김진수(전북), 송범근(쇼난벨마레)은 빠졌다.

올 시즌을 앞두고 마요르카(스페인)에서 PSG로 이적한 이강인은 지난 20일 프랑스 리그1 툴루즈와 2라운드를 마친 뒤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쳐 최소 A매치 휴식기가 끝날 때까지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다.

소집 기간이 겹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일부 선수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했다. 백승호와 송민규(이상 전북),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박규현(드레스덴)은 황선홍호의 창원 훈련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럽 원정에는 제외됐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다음달 4일부터 창원에서 훈련을 시작한다.

그러나 같은 아시안게임 멤버인 설영우(울산)와 홍현석(헨트)은 클린스만 감독의 뜻에 따라 우선 A대표팀에 소집된다.

대표팀은 다음달 4일 집결해 곧바로 1차전이 열리는 웨일스로 출국하고, 해외파 선수들은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클린스만호는 한국시간으로 다음달 8일 오전 3시45분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웨일스와 1차전을 치른 뒤 같은달 13일 오전1시30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2차전을 갖는다.

◇클린스만호 9월 유럽 원정 친선경기 소집명단(총 25명)

▲골키퍼 = 김승규(알샤밥), 조현우(울산), 김준홍(김천)
▲수비수 = 김영권, 정승현, 설영우(이상 울산), 김민재(바이에른뮌헨), 이기제(수원), 김주성(서울), 강상우(베이징궈안), 김지수(브렌트포드)
▲미드필더 = 손흥민(토트넘), 문선민, 안현범(이상 전북), 박용우(알아인), 양현준(셀틱), 이동경(울산), 이재성(마인츠), 홍현석(헨트), 황인범(올림피아코스), 황희찬(울버햄튼), 이순민(광주)
▲공격수 = 오현규(셀틱), 조규성(미트윌란), 황의조(노팅엄)

유럽 진출 꿈 이룬 배준호 "잘하고 싶은 마음 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 멤버인 미드필더 배준호가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을 떠나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스토크시티로 향한다.

배준호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현지에서 메디컬테스트를 받은 뒤 문제가 없으면 스토크시티 입단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적료 등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0만 유로(약 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출국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배준호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며 "항상 꿈꿔왔던 무대이기 때문에 가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